존엄사, 불교적 해법은…"불살생계 유연한 해석을"

한국불교학회 10월 29일 학술대회
'존엄사' 주제… 불교적 대안 모색
무의미한 생명연장, 자비롭지 않아
"상황 따른 자비적 계율 해석 필요"

정현선 기자 honsonang@kakao.com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 모든 존재의 행복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정 상황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을 유발한다면 불살생계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리적 논쟁을 존엄사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일윤 스님(경희대 철학과 박사과정)이 밝힌 주장 중 일부다.

10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안락사 등 존엄사를 불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들이 이어졌다.

'죽음을 선택할 권리: 불교는 안락사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일윤 스님은 불살생 계율의 본질을 고찰하며 생명을 무조건 연장하는 것이 자비로운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일윤 스님은 "불교 윤리의 본질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의 행복과 고통의 경감을 포함한 포괄적인 생명 존중을 목표로 한다"며 "불살생 계율이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가르침이지만 고통 속에서 삶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교가 생명의 연속성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의 행복과 고통 경감을 중시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연장되는 생명은 삶의 본래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현희 한국외대 철학문화연구소 초빙연구원은 "불교의 불살생 계율이 생명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고통을 겪는 생명에 대해서는 자비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오 연구원은 "자비와 연민을 바탕으로 고통을 줄이기 위한 윤리적 차원에서 불교가 안락사를 수용할 여지를 열어둘 수 있다"면서 "이는 개인의 삶의 마지막 단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중요한 윤리적 원칙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김미정 명상심리상담사는 불교적 관점에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톨스토이의 작품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인용하며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닌 고통을 덜어주는 영적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가 죽음을 삶의 연속으로 이해하며 호스피스와 같은 영적 돌봄을 통해 평온한 마무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교계에서도 영적 돌봄과 호스피스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위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불교 교리를 기반으로 한 호스피스 및 간병 교육 체계의 도입과 확대를 제안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양영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발적 단식존엄사(VSED)'를 현대 불교적 관점에서 존엄사의 대안으로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VSED는 외부 의학적 도움 없이 스스로 음식을 끊는 방식으로 서구에서 안락사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힌 양 연구원은 자이나교의 '살레카나'와 VSED의 유사성도 언급했다. 살레카나는 자이나교 신자들이 생의 말기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단식과 명상으로 죽음에 이르는 임종 수행이다.

양 연구원은 "살레카나가 개인의 의지와 가족의 지지 속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며 "한국 사회의 고독사와 높은 자살률 문제를 지적하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조 강연을 맡은 자현 스님은 "불교가 존엄사 문제를 가장 깊이 다룰 수 있는 종교"라고 주장했다. 자현 스님은 "'생명은 내 것이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불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고통 속에서 생명을 무리하게 연장하기보다 개인 의지에 따라 평온히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현 스님은 "불교는 죽음을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을 존중하고 고통을 줄이는 자비의 가르침을 중시하기 때문에 존엄사 논의를 깊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주 회암사지 유물 본격 과학 분석 돌입

문화유산硏 · 회암사지博 10월 25일 업무협약 체결

202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오른 '양주 회암사지'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다각도로 조사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10월 25일 '양주 회암사지' 출토 유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은 회암사지 유물의 체계적 연구를 통해 사찰이 지닌 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회암사지 출토 유물의 학제적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담은 책자를 발간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려 중기부터 조선 중기까지 번영했던 양주 회암사지는 14세기 동아시아 불교 선종 문화가 꽃핀 중요한 사찰로, 지금까지 총 13차례의 발굴을 통해 영락장식, 소조불, 청기와 등 다수의 유물이 발굴됐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미흡했던 유물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고 석재와 청기와, 금속 유물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양주 회암사지의 가치를 심화할 계획이다.

정현선 기자

조선 불화·고려 석탑, 국보 지정된다

국가유산청 10월 31일 지정 예고
해인사 영산회상도 등 불화 2점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대상 성보
선림원지 불상 등 4건 보물 예고



사진 왼쪽부터 국보로 지정예고된 해인사 영산회상도, 직지사 석가여래삼불도 중 영산회상도,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조선 후기 후불탱화인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와 김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이 국보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조선 후기 후불도인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와 김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 고려 후기 백제계 석탑인 마곡사 오층석탑이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1997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된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는 화면 하단의 화기(畵記)를 통해 1729년(조선 영조 5)이라는 제작 연대와 의겸(義謙)을 비롯, 여성(汝性), 행종(幸宗), 민희(敏熙), 말인(抹仁) 등 화승(畵僧)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이다. 이 가운데 제작 책임자 격인 의겸을 붓의 신선인 '호선(毫仙)'이라는 특별한 호칭으로 기록해 그의 뛰어난 기량을 짐작할 수 있다.

'김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는 1980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된 조선 후기 후불도로 △중앙의 영산회상도 △좌측의 약사여래설법도 △우측의 아미타여래설법도 3폭으로 구성돼 있다. 현존 삼불회도 중 3폭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작품으로, 세관(世冠)을 비롯, 신각(神覺), 밀기(密機) 등의 화승들이 1744년(조선 영조 20) 완성해 직지사 대웅전에 봉안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유행한 공간적 삼불회도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불화로, 장대한 크기에 수많은 등장인물을 섬세하고 유려한 필치로 장중하게 그려냈다. 3폭 모두 사방 테두리 부분에 〈조상경(造像經)〉에 근거한 원형의 범자문 진언을 배치하여 상징성을 부여한 점도 주목된다.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은 고려 후기에 조성된 5층 석탑으로, '풍마동(風磨銅)'이라고도 불린다. 길이 1.8m의 금동보탑을 옥개석 위에 올려 이른바 '탑 위에 탑'을 쌓은 매우 특수한 양식을 갖췄다. 특히 금동보탑은 중국 원나라 등에서 유행했던 불탑양식을 재현하고 있으며, 제작기법이 정교하고 기술적,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나다. 특히 당시 불교문화의 국제적인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2중으로 조성된 석탑의 기단은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백제계 석탑 양식을 보이며, 석탑 지대석에는 게의 눈과 같은 형상의 곡선 모양을 일컫는 해목형 안상(蟹目形 眼象)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현존하는 석탑에서 최초로 발견된 사례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화성 용주사 감로왕도,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

신중일 기자

웹툰 '세화, 가는 길' 오늘의 우리만화 선정

사찰음식 주제… 치유 전해

사찰음식을 주제로 한 감성 웹툰 '세화, 가는 길'이 2024년 '오늘의 우리만화'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만화가협회(회장 신일숙)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0월 21일 올해 '오늘의 우리만화' 수상작으로 '세화, 가는 길' '똑 닮은 딸' '부르다가 내가 죽을 여자뮤지션' '헤매기의 피곤과 즐거움' '황제와 여기사' 등 5편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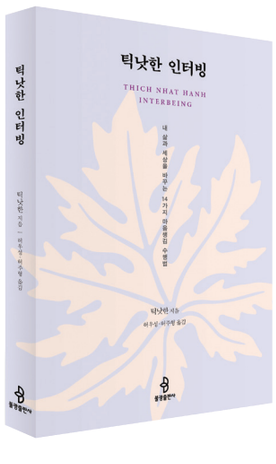
'세화, 가는 길'은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잃은 주인공 세화가 상실감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다가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찰 세화사에서 사찰음식을 맛보게 되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오늘의 우리만화' 선정위원회는 '세화, 가는 길'에 대해 "사찰음식을 통해 위로와 쉼을 전달하며 옴니버스 형식으로 각기 다른 화자들의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점이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정현선 기자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세상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틱낫한 스님이 알려주는 의식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위한 14가지 마음챙김 수행 지침서



내 삶과 세상을 바꾸는 14가지 마음챙김 수행법

틱낫한 인터빙

틱낫한 지음
허우성·허주형 옮김
264쪽 | 18,000원

『축의 시대』·『신의 역사』 저자 세계적인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

그가 종교, 문화, 역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풀어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두 가지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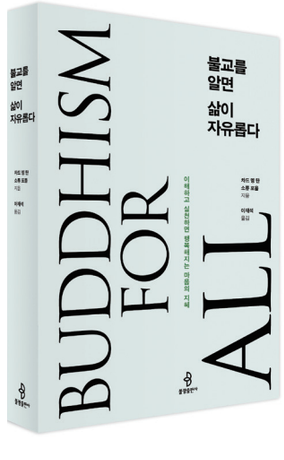
이기적 본능을 넘어서는 공감의 힘

상처 주지 않을 결심

카렌 암스트롱 지음
권혁 옮김
264쪽 | 20,000원

세계 엘리트들이 먼저 알아본 불교의 가치!

세계 유수의 기업에 명상 열풍을 일으킨 구글 '내면검색 프로그램'의 핵심, 거기에 마음의 과학 '불교'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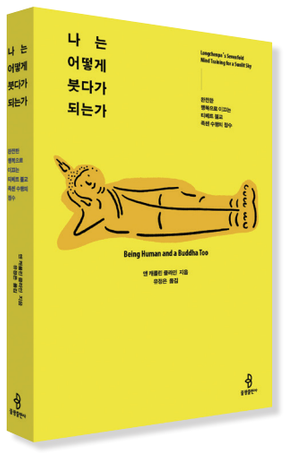
이해하고 실천하면 행복해지는 마음의 지혜

불교를 알면 삶이 자유롭다

차드 멩 탄·소류 포올 지음
이재석 옮김
516쪽 | 25,000원

완벽한 자신과 마주하는 평생의 통찰!

티베트 불교 수행의 정점인 족첸에서 무상·인과·죽음을 꿰뚫는 가장 명료한 지혜를 얻다!



완벽한 행복으로 이끄는 티베트 불교 족첸 수행의 정수

나 는 어떻게 붓다가 되는가

앤 캐롤린 클라인 지음
유정은 옮김
392쪽 | 23,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